

韓國國立公園協會 會長 薛國煥



1970年代는 우리 歷史上 高度成長, 國際秩序에의 參與 등 새로운 轉換의 契機가 된 時代로 特徵 지을 수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 '70年代의 마지막 한해를 보내는 送年의 마다에 이르렀다.

經濟主導의 高度成長持續은 世界到處에서 우리의 人力과 商品이 우리의 힘을 가장하고 矜持를 갖게 하였으나 한편에서 어려운 與件을 견디고 克服해야하는 現實 때문에 지나치게 내닫거나 順理로 理解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우리 겨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즐기차게 이어온 은근과 끈기로 슬기롭게 겪어 온 보람으로 希望을 품고 80年代의 새 時代를 내다 보게 되었고 저마다의 分野에서 지난 時代를 돌이켜 보아 整理하고 오는 時代를 바라보며 成熟을 다짐해야 할때다.

70年代는 1971年11월에 우리 國立公園協會가 創立되어 國立公園의 自然資源保護와 利用의 合理化를 통한 自然保護運動의 民間推進主體를 自處하여 외로운 活動을 펴기 시작하였고 1977년에 政府의 自然保護汎國民運動이 施行되어 1978년에는 自然保護憲章의 制定과 함께 全國적인 組織이 이루어짐으로써 世界的인 自然保護 參與國이 되었다.

自然保護에 관한 學術講演, 行事, 國際會議에의 參加, 出版物 등이 盛況을 이루었으나 短期間·速成·早期完遂의 傾向이 自然을 對策으로한 國民運動에까지 번져서 特殊分野에 限定된 偏見이나 特定地域에 限定된 事例가 一般的인 것으로 強요되기도 하면서 막상 自然保護의 참뜻은 흐려지고 그처럼 요란한 國民運動이 없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特別히 뛰어난 成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철새가 찾아 오는 곳이나 사람이 피해야하고 工業團地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나오는 反面에 工業團地의 公害防除나 철새渡來地의 造成은 여기되지 않았고 벼이삭 쪼아먹는 참새나 人蔘밭을 망치는 평도 自然保護를 놓고 따질 형편이었다. 國立公園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쓰레기가 쌓일 염려가 있으면 登山客을 廢止하고 自然保護때문이라 하기도 했다.

사람과 自然의 關係는 서로 도움이 되고 調和를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만이 犧牲하고 一方的으로 奉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처럼 資源이 없고 힘을 길러야 할 나라에서는 참새나 철새가 오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벼이삭이 빨리고 養殖場의 물고기가 없어지고 工場을 문닫아야 한다면 참기 어렵다. 名勝山脈의 入口에서 洋式旅館만 보고 深山幽谷을 찾는 登山路가 없다면 참기가 어렵다.

닥아드는 80年代에는 애들처럼 우루루 물러다니고 보채고 서두르고 출렁대는 어리석음대신에 느긋하고 어른스러운 成熟함을 보일 때다. 1970年代의 마지막 다리를 넘기면서 自然保護運動과 國立公園運動이 가능해야 할 成熟의 基準을 다시 한번 整理하여야 겠다. 國立公園運動은 民間運動이며 自然의 保護와 利用의 調和를 위한 運動이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제 合理的인 利用을 힘들여 익혀야 할 때가 온 것이다.